

힘차게 달린 101회기, 마지막 실행위원회 개최

산하기관 이사 및 감사 인준의 건 등 처리



101회기 마지막 실행위원회이자 2023년 정기지방회를 마치고 새로 선출된 지방회장들이 처음 참석하는 제5차 실행위원회의가 지난 4월 20일 총회본부 대에 배설에서 개최됐다.

35명의 신입 지방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성금전달을 위

한 현지 방문과 격려를 위해 긴급재난대책본부장 천민우 장로,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 사회복지국장 이순영 목사가 방문한 일정을 보고하고 모금된 성금은 한교총과 기아대책, 시리아 난민지역지. 한국인 선교사 등에 지원키로 합을 보고했다. 현장개정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위원장 유선호 목사는 주요 이슈가

될 조항은 개별적으로 축조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대표적으로, 만 나이법, 산하기관 임원 임기, 세례교인비 부과, 원로대 의원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유선호 목사는 공정한 현장개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했으며 타교단 현장들과 함께 비교 검토하며 연구안을 만들었다고 보고했다.

결의 안건으로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 인준의 건이 상정되어 임원회의의 추천대로 노00 목사는 재임기로 하고, 김성진 목사(광명)와 이명화 목사(원당)를 신입이사로 인준기로 하였다.

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도 상정되어 남부교회 김영길 장로와 주사랑교회 이상복 목사를 각각 인준기로 하였다. 성결교신대원 이사 및 감사의 건도 상정돼 박흥복 장로(소방)와 김영철 장로(세광)가 각각 인준처리되었다.

총회 심리부 연이어 회의 갖고 총회 대의원 심리

원로목사 및 장로 동수 파견 조항... 대의원 수 감소할 듯



총회 심리부(부장 문정민 목사)가 지난 4월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102회기 정기총회 대의원 자격 심리를 이어갔다. 평생교육 참여여부, 지난 총회 출석여부, 유지비 납부 등의 항목을 꼼꼼하게 살피는가 하면 현장에 명시된 대의원의 자격에 부족함은 없는

지 등을 세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에는 '원로장모와 원로 목사 동수로 지방회가 선정한다'는 현장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원로대의원들의 수가 예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정



총회장
신현파 목사

- 5. 1 전국사모전양단 격려방문
- 8 교단전국목회자축구대회
- 15 총회임원회의
- 22~23 제102회 교단총회



마태복음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성결대학교,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이음교육 지원 업무협약

“유보통합 대비 영·유아 이음교육 발전 위해 필요한 지원 다할 터”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 목사) 유아교육과와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유보통합에 대비해 영·유아 이음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 유아교육과 조유진 학과장, 임은미 교수, 배지현 교수, 이경진 교수, 김수희 교수, 강성리 교수, 지역사회협력단 김계동 단장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할혜성 교육장, 서울신구유치원 이해주 원장 등 관계자 총 12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놀이 중심의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상호 협조 ▲유아·교직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 ▲영·유아 이음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영·유아 관련 보육·교육 전공 대학생을 위한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식 총장은 “양 기관 협력 증진과 영·유아 이음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진 학과장은 “놀이중심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장애통합교육 등 성결대 유아교육과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영·유아 이음 교육 지원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양 기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제29회 교역자 사모수련회 및 정기총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주제로 소망수양관서 열려



‘제29회기 여성 전국교회 교역자 사모수련회’가 4월 17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 소망수양관에서 개최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행 13:22)이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는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째 날 개회예배에서는 총회장 신현

파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신 총회장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여성사모회가 되길 바라며 더욱 성장되어서 모든 교회들을 도울 수 있고 어디를 가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와 성결대 총장 김상식 목사의 격려사도 있었다.

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복통쇼(복음으

로 통하는 쇼) 시간에는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인 안재우 소장이 강연을 맡았다.

이어진 둘째 날에는 드라마 ‘소년심판’의 호동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판사(부산급정평안교회 장로)의 특강, 최일호 전도사의 레크레이션과 정기총회가 이어졌고, 마지막 셋째날 파송예배 시간에는 교역자사모회 지도고문인 유우열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한편, 새벽예배에는 성결 교신대원 이사장 강대일 목사와 지도위원 박병원 목사가,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 저녁식사를 마친 후 진행된 심령부흥회 시간에는 산용백 목사가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입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해림(비전) △1부회장: 방은실(영광), 2부회장: 한현숙(주님앞에제일) △1총무: 김진애(행복한), 2총무: 조남순(부활성산) △서기: 김명화(참길) △부서기: 이진이(신월동) △회계: 이영실(광은) △부회계: 도금숙(성은).

성결신문 백일장 대회 수상작 발표

대상에 여해구 장로... 현모양처 어머니의 삶 추억

제1회 성결신문 백일장대회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본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3월 20일부터 1달여간 동안 ‘어머니, 엄마, 올엄마’라는 주제로 원고를 접수 받아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특별상 1명을 각각 선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영예의 대상은 명일교회 여해구 장로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독일교회 전예나 권사, 우수상은 은현교회 박지희 집사, 특별상은 예뜨랑교회 황금빛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주일학교 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결 가족들이 참여했으며 소

중하고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심사를 맡은 조희경 교수전 성결대 교수·문학박사는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의 필자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생의 한 순간을 잘 포착하였다”며, “사랑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어머니의 세계를 언어로 그려낸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잘 표현해 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총회장 서신

섬기시는 교회와 성결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며 101회기 마지막 총회장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여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왔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새로운 100년 성결의 복음으로”의 목표를 정하고 교단 101회기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국내외 사역지에서 수고와 헌신으로 노력을 다해 오신 우리 성결의 지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총회장이라는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와 총회본부를 오가며 교단장으로 제게 주어진 책임에 힘썼던 기간이었습니다.

2022년 10월~12월, 2023년 3월~5월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성결인의 전도대회’를 통해 잠시 주춤했던 전도의 동력을 재전화시키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결인의 전도대회’가 탄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지속되고 풍성한 열매맺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발족한 ‘예성우성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이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마음모아 기도해 주시고, 교단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회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돕기 구호성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인사자료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단의 모범인 현장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수정하기 위해 현장개



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청회를 갖고 현장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현장에 미비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정리되면 교단이 더욱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101회기 총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마무리 짓지 못한 것들은 차후에 계속하여 연구되고 보완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며, 한국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정직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키워갈 때 그 가능성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지금도 복음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적응해 가야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세속적인 삶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바울의 심정으로 101회기 총회장으로서의 마지막 서신을 남기며 성결인들 모두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후 2023년 5월 9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현파 목사